







## 차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속에서.....1	백두대지에 일떠선 영웅청년발전소.....24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을 마련하시여.....4	밝게 웃어라 - 활짝 피여라.....28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강군으로.....6	웃음의 바다 룡라굽등어관.....30
청년강국의 력사 길이 빛나리.....8	과학자주택지구에서의 하루.....32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여.....10	특별상장을 받은 텔레비죤연속극.....34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12	산골마을 명의사.....3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새로 발굴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38
· 자력자강의 정신으로.....18	선조들이 창조한 기상관측문화.....39
· 평양체육기자재공장.....20	불굴의 정신력으로.....40
· 다시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22	소식.....41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6월

#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속에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조선에서는 지난 6월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온 나라 학생소년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강성조선을 떠메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억세계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주체조선의 소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소년단대표들은 성대한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온 나라 학생소년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관람하시었다.

공연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한 태양이시며 새 세대들의 눈부신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우리 조국이라고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의 공연성파를 축하하시고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조직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소년단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 주며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대해같은 사랑을 안겨 주는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은정이 구절마다에 어려있는 축하문을 받아 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소년단은 지난 70년동안 강철의 소년혁명조직으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소년단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혁명가로 억세계 준비해나가는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지덕체를 겸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준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맞으며 《소년》호방사포 증정식과 전국 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6 그리고 조선소년단창립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있었다.

70돐기념 사진전람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각지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뜻깊게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하  
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사진전람회 《해님과 붉은넥타이》와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6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 진행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 평양시 여러곳을 참관



《소년》호방사로 증정식이 있었다.



#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을 마련하시여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주체34(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노도와 같이 조국으로 진격하였다. 여기에 합세하여 국내의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은 전국각지에서 일제식민지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었다.

주체32(1943)년 1월 격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해방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비밀근거지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은 과전하시여 국내깊이의 산간지대들에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로 립시비밀근거지들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북부조선으로부터 국내중심깊이에 이르는 전국 각지의 전략적요충지들과 만주의 넓은 지역에 립시비밀근거지들이 수많은 꾸려져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구월산지구, 양덕지구, 마두산지구, 곡산지구, 지리산지구, 태백산지구를 비롯하여 국내각지에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들로 튼튼히 꾸려진 비밀근거지들과 립시비밀근거지들에서 전민항쟁조직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의 지도밑에 대렬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을 진행하면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전국의 무장봉기조직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자체로 비밀리에 무기와 폭탄을 만들었으며 식량, 피복, 의약품을 마련하여 저장하는 등 적극적인 무장봉기준비를 갖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투쟁 주요지역도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 조직된데 대한 당시 일제의 문건과 자료



광범한 군중을 반일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비밀근거지로 꾸려진 전산밀영의 천연바위와 나무들에 새겨진 구호문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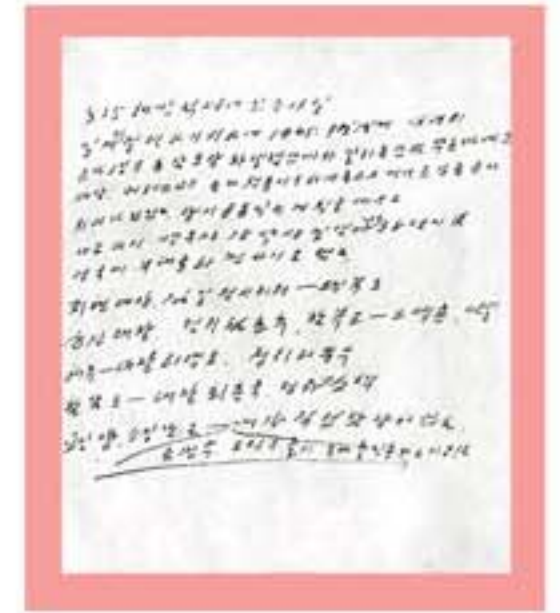
이와 함께 평양과 경성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여러가지 명칭의 항쟁조직들이 무어져 활동하였다.

그가운데는 김원주동지를 비롯한 혁명적인 청년들에 의하여 평양에서 조직된 조국해방단, 경성에서 조직되어 국내각지와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 김일성대를 비롯하여 각이한 명칭의 조직들이 있었다. 국내에 강력한 항쟁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진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전국도처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제압소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합세한 전민항쟁은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을 안아왔다.

전민항쟁의 기치높이 전민족을 총동원하여 강대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강성번영하는 조선과 더불어 영원히 길이 빛날것이다.

글 김금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조국해방을 맞이한 환희에 넘쳐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3월

#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강군으로

8월 25일은 선군절이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용기백배, 기세충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적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하신 이날과 더불어 그이께서 새기신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을 더욱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대덕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전하는 뜻깊은 곳의 하나  
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적들과 대치하고있는  
군사분계선이 지척인 이곳의 인민군초소를 처음으로 찾으신것은 주체  
52(1963)년 2월 6일이였다.

이날 감시소에 오르시여 남쪽으로 동강난 전기줄을 드리운채 군사분  
계선이 가로질러간 산중턱에 서있는 고압선철탑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끊어진 저 송전선을  
다시 이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부모들이 다 쓰지 못한 총을 억세게  
들어잡고 저 은빛고압선을 기어이 이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총대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  
중임을 대덕산초소의 군인들만이 아닌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오늘까지도  
자각하게 하여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인민군대가 들고  
나가야 할 《일당백》의 구호를 받아안고 새로운 결의에 넘쳐있는  
인민군지휘관들에게 구호의 본질적요구는 군인들이 방에서뿐만아니라  
공격에서도 하나가 백을 당할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것이라고 그  
참뜻을 명확히 깨우쳐주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33년후인 주체85(1996)년 3월 18일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대덕산초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분대의 전투준비상태와 군인들의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초소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작전술적  
방안을 제시하시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에게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주체49(1960)년 8월 25일부터 장장 50여성상 끊임없이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그 길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  
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백두의 선군령장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하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다.

글 박광옥







총서홀에는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 청년강국의 력사 길이 빛나리

조선에서 주체105(2016)년 1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가

집대성되어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이 건설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훌륭히 건설된 청년운동사적

관은 총부지면적 2만여㎡, 연건평 1만 460여㎡로써 총서홀과 14개의 참관호실, 대형반경화실, 컴퓨터열람실 등으로 꾸려져있다.



사적관총서홀에 들어서면 정면에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전시하였다.

1호실에는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5(1926)년 6월 화성의속에 입학하시어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그해 10월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비범한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선혁명의 투쟁목표와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는데 대한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2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민청을 창립하시고 청년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신 사적내용들이 전시되어있다.

해방된 새 조선의 청년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되었다.

3호실에는 1950년대에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빛내이며 자기 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력사에 새긴 조선청년들의 값높은 삶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하여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로부터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130여만명의 청년들이 전선에 탄원했으며 전쟁기간에 배출된 600여명의 영웅들중에서 400여명이 청년들이었다.

전후북구건설에서도 청년들은 탄광, 광산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선봉적역할을 하였다.

다음호실에는 주체45(1956)년 11월 4일 조선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청년학생들의 대규모적인 해외시위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2층의 6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0년대 전반기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민청을 조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이 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은 여러 호실들에 구체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되어야 하며 조선청년운동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청년들에게 혁명의 해불봉을 넘겨주시었으며 청년동맹창립 50돐을 맞이한 역사적시기에는 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청년동맹기발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이 위대한 경륜이 있어 조선청년들은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다.

11호실과 12호실을 련결하는 복도의 벽면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배출된 청년영웅들의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역세계 자라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들은 또 얼마나 복받은 청년들인가.  
 정녕 청년운동사적관은 주체적인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대한 력사가 영원토록 빛을 뿌리게 하는 조선의 만년재보이다.

사진 김윤혁 글 김일남



##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여

조선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을 앞표지 윗부분에 정중히 모시고 로작

들을 출판하면서 여러 나라 출판기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서문을 주었다.  
 로씨야, 인디아, 이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25개 나라에서 번역출판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은 18종에 13개 나라어문으로 1만 9천 170부에 달한다.  
 태양절을 맞으며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을 출판하고 발행식을 의미있게 진행하였다.  
 글 김정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발행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

산림복구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었다.

세면이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골짜기를 따라가며 형성된 양묘장의 총부지는 수백정보이다.

산림구역과 생산구역, 종업원들의 살림집들과 관리건물, 문화회관, 소학교와 탁아소, 유치원, 종합편의시설 등이 있는 구역으로 나뉘어진 양묘장은 더욱 현대화되고 묘목생산

능력은 지난 시기에 비해 3.3배나 높아졌다.

양묘장에는 종자의 선별과 처리 그리고 파종으로부터 묘목의 재배와 포장에 이르는 모든 묘목생산공정들과 기질생산공정, 나무모저장 시설 등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 기본은 묘목온실들인 7개의 유리 및 수지경관온실들이다.

빛가림판과 관수식 및 안개식분무기, 배풍장치들과 온실관측기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있는 이곳에서 짝이 트고 뿌리를 내린 나무모들은 그후 야외의 적응구으로 옮겨져 일정한 기간 있으면서 보다 충실하게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양묘장에서는 한해에 두번 묘목재배

를 할수 있다.

현대적설비들을 갖추고있는 야외재배장과 풍토순화용 도입시험구, 원형삽목장들에서도 수많은 나무모와 나무들이 푸른 잎을 기세 좋게 펼치며 자라고있다.

묘목온실들과 재배장들의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은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게 구축된 통합조종체계에 의하여 조절된다.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양묘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양묘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이 또다시 과시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통합조종체계의 수립 이의

에도 중력선별기와 종자날개제거기, 종자처리기, 과종흐름선, 포전기상관측기 등 이곳에 새로 설치된 설비들의 80%가 국내의 과학기술연구집단에 의해 설계제작된 사실이 그를 증명하고있다.

산림과학발전과 양묘기술보급을 선도해 나갈수 있는 연구력량도 그뿐하게 갖추어져있는 이 양묘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2 000여만 그루이다.

오늘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은 산림복구 전투에서 강력한 병기창, 핵심전초기로서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최기성







양묘장에는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는 통합조종체계가 구축되어있다.







양묘장에는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지도 꾸려져있다.

묘목전시장



종업원살림집들과 교육문화, 종합편의시설들도 갖추어져있다.





#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가 당대회에서 제시된 강력적 과업판철을 위한 200일전투에 떨쳐나섰다.

유색금속생산기지의 하나인 단천제련소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제련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 원료, 연료의 국산화실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배소와 조액 등 주요공정들의 설비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음으로써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배소공정에 새로 연구도입한 정광장입자동조종체계는 공정별 기술지표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면서도 소광생산을 높이고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조액의 침출률을 높일수 있는 관로망들에 대한

개조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전해공정에 절실히 필요한 랭크풍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하였다.

제련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제작설치한 전해공정랭크풍탑은 종전보다 성능이 두배로 높고 부식현상이 없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제련소에서는 산화아연생산공정도 새로 일떠세워 아연생산에서 실리를 얻고있다.

전기아연생산공정에 나오는 잔사를 다시 재처리하여 산화아연을 대량생산하는 이 공정은 실수률이 매우 높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적토대에 있음을 실천을 통해 확증한 단천제련소에서는 오늘 이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 혁신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체육강국건설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지난 6월에는 청춘거리 체육촌에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연 건축면적이 9 980여㎡에 달하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은 전문체육선수들은 물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설비들이 합리적으로 갖추어져있을뿐만 아니라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공장의 생산부문은 준비공정과 구기체육종목에 쓰이는 공생산공정 그리고 그물류생산작업장으로 되어있다.

공장의 생산공정들은 자동흐름선으로 되어있으며 자동내피성형기, 내피가류기, 꼭지조립기, 자동실감기, 고무감싸기를 비롯하여 많은 기계설비들은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완성한것이다.

공장에서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리용하는 경기용기재, 교수훈련용기재, 보조기재, 보호기재, 대중용몸단련기재들이 생산되는데 공류, 장갑류, 그물류, 운동복류, 미끄럼방지가루 등 그 가지수만도 수십여가지나 된다.

공장에는 제품의 질을 담보할수 있게 국제



공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체육기자재들의 형태와 설계창안, 상표도안창작, 새 제품개발 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준비실이 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체육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높은 열의로 하여 축구공, 배구공, 룡구공, 지상호케이공, 정구공, 권투장갑, 호케이장갑, 사격장갑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기자재들이 생산되고있다.

《대성산》상표를 가진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의 제품들은 체육인들은 물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영조





# 다시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웅진만은 조선서해안에서 바다가양식에 유리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넓은 간석지가 펼쳐지고 여러개의 섬들로 둘러싸여있을뿐아니라 수질과 염류상태가 양식에 적합한것으로 하여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김, 다시마, 미역을 비롯한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이 많이 낀다.

특히 웅진참김은 다른 지역의 김보다 크면서도 질과 맛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보호증식되고있다.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수백정보의 양식장을 꾸려놓고 김, 다시마, 미역과 같은 바다나물들을 자래우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양식장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

적으로 하는 한편 선진과학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량품종의 다시마종자들을 생산에 받아들인 사업소에서는 그 경험에 기초하여 부력에 의한 다시마 생산성제고, 참미역인공씨받이방법 등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였다.

김포자환경상태를 마련해주고 틀식김양식방법도 받아들여 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웅진참김생산도 늘이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조개류들에 대한 양식에서도 품종별생태학적특성에 맞게 양식장을 정하고 그 관리를 과학적방법으로 하고있다.

인민들의 식탁에서 바다향기가 넘쳐나게 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헌신적으로 일해가는 양식공들의 노력으로 웅진만에는 풍성한 바다나물작황이 펼쳐지고있다.

사진 안평연 글 박훈





# 백두대지에 일떠선 영웅청년발전소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선군조선의 총진군길위에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백두대지에 우뚝 솟아올랐다.

지난 10년동안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과제가 불과 120여일동안에 수행되는 기적이 창조되며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가 완공되어 준공한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만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다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드디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완공이라는 환희의 순간이 찾아온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까지 일떠섬으로써 서두수상류의 수심리 물길을 따라 백두고원의 천연수림속에 만년대계의 언제들과 백두영웅청년호를 비롯한 대인공호수들, 수백세대의 새 문화주택들이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을 이루게 되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청년들을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의 응결체이다.

지난해 4월 산세험한 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의 위훈을 청년대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9월에 또다시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발전소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그이께서는 10월 발전소준공식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올해 청년절까지 끝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청년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시었다.

공사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발전소건설자들의 겨울나이준비까지도 친히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청년건설자들의 힘과 열정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하어 모두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새로운 발전소건설에 용약 펼쳐나섰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체가 조선의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최악의 자연 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튜레없이 간고한 대자연개조사업이었지만 특히 3호 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속에서 벌여졌다.

-30℃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강설이 연방 들이닥치는 북부고산지대의 기상기후조건, 불리한 수송조건...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위대한 령도자의 슬하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 청년건설자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청년건설자들은 지난해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고서는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당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전물로 마련할 보다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비상한 각오를 안고 언제속벽, 조압수조, 발전기실 등 콩크리트타입장들에 수천㎡의 보온덮집들을 지어놓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밀고나가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었던 기존공법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었다.

하어 언제기초굴착을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되는 지난 3월말까지 언제쌓기 공사를 완전히 결속하였고 4월말에는 발전소준공을 선포하는 백두산건설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백두청춘대학》으로 자랑높은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 뚜렷이 파시되었고 그 무한대한 힘과 슬기가 총폭발되었다.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고귀한 위훈과 업적,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깃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 생산되고있는 전력은 지금 량강도의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백두산영웅청년2호발전소



문화주택들도 건설되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에는 청년들의 고키한  
위훈과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 신의주육아원에서



## 밝게 웃어라 - 활짝 피여라

부모없는 아이들도 모두 나라의 보배,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가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시책을 받들어 한결같이 펼쳐나선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지성어린 노력에 의하여 일떠선 신의주육아원, 애육원에 원아들이 새 보금자리를 잡은것은 지난 4월 말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에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각각 4층으로 서로 나란히 자리를 잡고있는 ㅁ자형을 이룬 육아원과 3면체형을 이룬 애육원의 내부에는 수십개의 보육실, 교양실, 잠방들과 함께 지능놀이실, 종합유희장, 종합운동실, 무용실, 자연관찰실, 실내 물놀이장 그리고 목욕실, 치료실 등 보육 및 교양시설들이 그쯘히 구비되어있다.

그리고 야외에는 아이들이 다칠세라 고무깔판이 깔려있고 여러가지 운동, 유희기재들이 설치된 드넓은 운동장과 야외물놀이장이 꾸려져 있다.

이곳에서 원아들은 하루 24시간 높은 전문식사와 자질을 갖춘 보육원, 교양원들의 살뜰하고 세심한 보살핌속에 세상에 부럽없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그들은 보육시기부터 춤과 노래, 지능놀이 등으로 일관된 일과생활을 하고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이들의 성장과 발육은 보다 촉진되고있다.

원아들에게 공급되는 각종 식료품과 영양제, 의복류와 놀이감, 학용품들은 전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되고있다.

하나같이 튼튼하고 언제나 밝은 웃음속에 명랑하게 자라고있는 원아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물들과 함께 이곳 선상지구의 제일가는 풍치를 이루고있다.

하여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한참동안 이 원아들의 궁전앞에 서서 좋아라 마음껏 뛰노는 그 주인들을 즐겁게 바라보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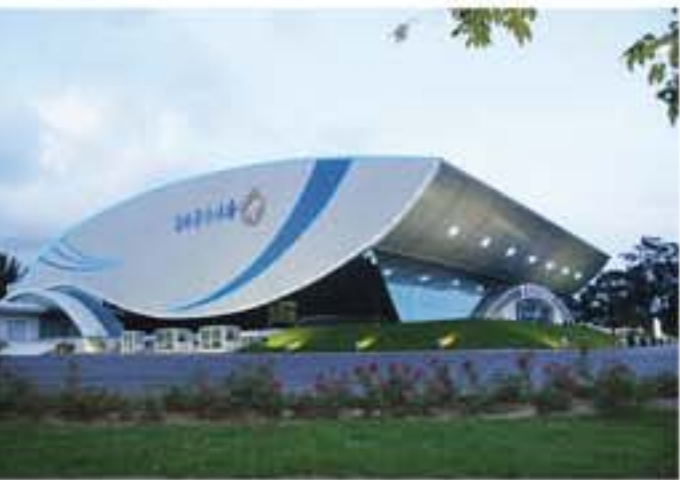
사진 홍광남 글 최광

## 신의주애육원에서





# 웃음의 바다 통라곶등어관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통라도에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드넓은 유희장이며 룡동영화관, 전자오락관과 웃음집 등 룡라인민유원지의 그 어디를 가나 기쁨을 자아내지만 통라곶등어관에서는 관람자들이 곱등어들의 공연에 끌리어 웃음속에 시간가는줄 모른다.

맑고 푸른 바다물이 출렁이는 수조에서 어뢰정마냥 물결을 헤가르는 모양이며 7m높이에 있는 공을 꼬리로 채치있게 치는 기교도 볼만하지만 수자계산도 하고 관람자들과 악수며 뽀뽀를 할 때는 참으로 귀엽기도 한 곱등어들이다.

더우기 휘파람소리를 내기도 하고 튕돌리기도 척척 하는 곱등어들의 공연은 마치 명배우들의 무대같이 관람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룡라곶등어관은 4년전인 주체101(2012)년 7월에 세워졌다.

처음 미숙한 동작밖에 수행하지 못하던 곱등어들이 오늘 인민들에게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는 《명배우》로 되기까지는 이곳 조교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2~3살난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을 가진 곱등어는 사람과 인차 친숙해질수 있는 포유동물이지만 여러가지 재주를 배워줄수 있는 좋은

따로 구별되어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재주를 할수 없다고 인정된 열대반점곱등어들을 길들이면서 조교사들은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새로운 조교동작들을 완성해나갔다.

곱등어의 생태학적특성을 연구하며 미지의 조교기술을 터득하였고 짧은 기간에 멋진 기교동작들을 수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열대반점곱등어에 대한 조교리론을 새롭게 내놓은 그들의 노력으로 곱등어들은 10여가지의 기교를 수행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룡라곶등어관의 조교사들은 물개들도 길들이 손님과의 악수, 춤추기, 튕걸기, 앞발로 서기와 같은 재주들도 새롭게 펼쳐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이채로운 공연으로 하여 룡라곶등어관은 언제나 흥성이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강수련



곱등어, 물개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는 조교기술을 터득해간다.





# 과학자주택지구에서의 하루



평양시 북쪽교외에 위치하고있는 은정과학  
지구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돋구어주고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열정과 랑만이 넘치고  
있다.

아침마다 넓은 부지에 산뜻하면서도 규모  
있게 일떠선 20여개 다층살림집호동들의 현관  
문들을 나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깊은 사  
색과 열띤 론쟁속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기들의 정은 연구실과 실험실, 강의실들로  
출근길을 다그친다.

그들속에서 수학연구소의 권위있는 로학자며  
2015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정보  
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리과대학 력학부의 실장  
그리고 세계과학원 청년회원인 레이자연구소  
의 30대 연구사의 활력에 넘친 모습도 안겨온다.

주체103(2014)년 천여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들이 7개월동안에 일떠서는것과 동시에 새 세기  
교육단위의 본보기로 건설된 소학교, 초급중학  
교와 유치원 등에서는 과학자자녀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들이 잇달아 펼쳐진다.

다층살림집들과 조화를 이루며 주택지구의  
여기저기에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위성과학자  
병원과 식당, 상점들, 편의봉사기지의 위생원  
등도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흥성이고  
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이나 다름바없이 훌륭  
하게 꾸려진 주택지구의 여러 체육공원들에서  
는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의 열기띤 체육활동이  
밤늦도록 이어진다.

행복과 즐거움, 랑만으로 약동하던 하루가

저물면 과학자주택지구의 풍치는 또 다른 정서  
를 불러일으킨다.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마음껏 연구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추어 안겨준 살림집들의 불빛은 창가마다에  
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온다.

그리고 더 높은 과학연구성으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이어  
가는 과학자들의 마음이란듯 밤이 지새도록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불빛은 꺼질줄 모른다.

사진 안평연 글 최광호





# 특별상장을 받은 텔레비죤연속극

지난 4월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제18차 국제정탐물영화 축전이 진행되었다.

57개 나라에서 400여편의 영화들이 출품된 축전에서는 조선의 텔레비죤연속극 《방탄벽》에 특별상장이 수여되었다.

주체104(2015)년에 창작된 텔레비죤연속극 《방탄벽》은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던 항일혁명투사가 쓴 장편실화집에 기초하여 텔레비죤극창작사 제3창작단에서 제작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던 1940년대 전반기와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된 직후 새 조국건설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는 텔레비죤연속극은 방국노의 운명을 피할길 없었던 주인공 정길찬이 조선인민혁명군 특수공작원으로 성장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는 일제의 《화살작전》을 파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의 딸 정옥금도 대를 이어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신념의 방탄벽을 쌓아가는 내용을 담은 정탐물주제의 작품이다.

아버지와 그를 물리해하는 딸 정옥금과의 극적갈등, 조국광복회특수회원이라는 사실에 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일제의 《화살작전》을

파란시키는 《방패》공작조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옥금의 성격발전 등 작품은 매 구성요소들이 짜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자기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길만이 자신과 자기 가정의 행복과 운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철학적인 종자를 형상적으로 명백하게 시사하고있다.

이번 영화축전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련속극을 상영하였으며 그에 대한 축전대표들의 반영 또한 자못 컸다.

그들은 조선의 텔레비죤연속극 《방탄벽》을 가장 인상깊게 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영화는 세계에서 자기의 고유한 빛과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관객들을 영화의 세계에로 끌고들여가고있다, 연출가의 섬세하고 독특한 극조직, 배우들의 매력있는 연기, 높은 촬영형상과 컴퓨터화상처리기술, 총체적으로 민족성이 강하고 주제가 뚜렷한 조선의 영화는 자기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고 말하였다.

텔레비죤연속극 《방탄벽》은 작가 정영범, 연출가 엄창결, 주역 배우에 리수룡, 리수경을 비롯한 창작가들과 배우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정열의 산물이다.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오늘도 새로운 작품창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제18차 국제정탐물영화 축전에서 텔레비죤연속극 《방탄벽》에 특별상장이 수여되었다.



배우 리수경 (정옥금역)



작가 정영범



연출가 엄창결



배우 리수룡 (정길찬역)







황해북도 중화군 룡산리인민병원 원장 공훈의사 최순옥

황해북도 중화군 룡산리라고 하면 조선에서 수천여개나 되는 리들중의 하나이면서도 산골 마을이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룡산리가 오늘 질병을 모르는 리로, 고려치료가 유명한 곳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고있다.

그것은 여기 인민병원 원장 최순옥과 관련되어있다.

그는 이 고장에서 20여년간 소아사망률은 완전히 없애고 상급병원과송물과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훨씬 줄이였을뿐만아니라 고려치료로 수백명의 난치성질병환자들을 완치시켰던 것이다.

올해 54살인 그는 지난 20여년간의 하루하루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뜨거운 인간애로, 지극한 정성으로 수놓아왔다.

주민들의 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선전으로부터 수시로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때없이 가야 하는 20여리 왕진길...

힘에 부친 나날들이었지만 최순옥원장은 언제한번 환자들의 치료를 미룬적이 없었을뿐만아니라 그들의 병을 완치시킬 때까지 물려서지 않았다.

룡산땅에서 태어난 애기로부터 고려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이 없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서 그는 리진료소의 병원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을뿐만아니라 조선민족의 전통치료법인 고려치료로 난치성질병들까지 완치시키는 놀라운 의학성과를 이룩하였다.

심한 뇌경색에 의한 반신마비로 운신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3살난 대현어린이를 20여일만에 기적적으로 완치시켰으며 태어나서부터 크게 울지 못했을뿐만아니라 어린이뇌성마비에 의한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운동장애를 받고 있던 12살난 영명소년을 3개월만에 새 모습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은과광산마을에서 12년동안 언어장애와 제각기 노는 팔다리때문에 문밖에 나서

# 산골마을 명의사

기조차 주저하는 경실이라는 소녀를 데리고 부모들이 최순옥원장을 찾아와 자기 딸이 로라 스케트를 타고싶다고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주어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게 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은 나라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데 경실이 너무나 병으로 그늘져 산다면 내 어찌 보건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니.)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그는 경실이의 몸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진찰과 그에 따르는 침세기를 설정하고 뜸과 부항을 따라세웠으며 고려

약제로 매일 약을 지어 먹였다.

이런 정성속에서 경실은 3개월도 못되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은 물론 노래까지 부르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그렇게 타고싶었던 로라 스케트까지 타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룡산리인민병원을 찾았던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역토론회 참가자들은 자기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로라스케트까지 타는 경실을 보고 조선의 전통의학이 제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의료일군의 본분을 다해가는 최순옥원장의 높은 고려

의술은 뇌혈전 및 뇌출혈, 고혈압, 시신경위축 고도근시, 뇌막염후유증을 비롯한 수백명의 난치성질병환자들의 건강을 다시 찾아주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고려의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선군시대 공로자, 공훈의사, 명의사의 영예를 지니고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있다.

최순옥원장은 오늘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랑과 정성의 치료길을 걷고있다.

사진 진영호 글 김대현



고려약들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있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과 함께 주민들속에 들어가 위생선전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새로 발굴한 세계최초의

# 금속활자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시기(918년~1392년)의 금속활자들

조선에서 최근 12~13세기에 주도되어 사용  
하여온 금속활자들이 새로 발굴되어 역사학적  
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물흐르는 모양 칩》, 《지계비 조》, 《이름  
명》, 《눈뽕을 명》자들인 이 금속활자들은  
조선의 첫 통일국가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되었다.

만월대는 고려의 왕궁터이다.

약 700년동안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온 옛 왕궁터인 만월대  
에서는 주체45(1956)년에 고려시기의 금속활자  
한점이 발굴됨으로써 조선은 세계최초의 금속  
활자발명국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만월대에서는 또 하나의  
고려시기의 금속활자가 발굴되었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며  
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낼데 대한 조선  
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을 받들고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의 학술연구집단은 만월대에서 조사발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지난 4월 만월대 서부전측근 남쪽  
부분에 대한 역사기록자료연구와 지난 시기  
진행된 시굴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밀히 하

는 과정에 이미 발굴한 2점의 금속활자의 출토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는것을 밝히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200㎡의 발굴면적에 대한  
채취기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과정에 4점의 금속활자들을 발굴하였다.



1377년에 조선의 청주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한 불경책(적지심경)은 주체61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국제도서의 해》의 한 행사로서 프랑스의 빠리  
에서 진행된 《책의 역사》종합전람회에서 세계력사상 가장 오랜 금속활자본  
이라는것이 인정되었다.

분석에 의하면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재  
질이 모두 청동이라는것이 확정되었다.

그중 3점의 금속활자는 이미 발견된 금속  
활자들과 같이 크기가 가로 12~13mm, 세로  
10~11mm, 높이 6~7mm인 직 6면체모양이며 앞  
면에는 글자가 돋혀있고 뒤편에는 구슬 또는  
반구모양의 홈이 있다.

《눈뽕을 명》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금속활  
자들보다 작은 활자로서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7mm, 6mm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1423년에 네덜란드  
에서, 1450년에 도이칠란드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있는데 개성  
만월대에서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그보다  
300년이나 앞선것이다.

이것은 고려사람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새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들은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금속활자의 형태  
와 종류, 재질, 서체, 주조방법 등에 대한 연구  
를 보다 폭넓게 진행할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  
사적의의를 가진다.

고려가 명실공히 금속활자의 첫 발명국이라  
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입증해주는 금속활자  
들은 세계문명발전에 기여한 조선민족의 슬기  
와 재능을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으로 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래현

# 선조들이 창조한 기상관측문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  
은 오랜 옛날부터 기상조건을 자기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한 창조적  
활동을 벌려왔다.

대기현상을 연구할만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없었던 고대시기에는 관찰과 생활적경험에  
의거하여 자기 지방의 기후조건과 날씨를 미리  
알아냈으며 그 방법을 《저녁노을이 끼면 날씨  
가 좋고 아침노을이 끼면 비가 온다》와 같은  
속담과 격언에 담아 후세에 전하였다.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이르러 천문  
기상관측을 위한 국가적인 기관을 두고 천문대  
에서 관측기록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그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상 및  
천문관측자료가 29건이나 기록된것을 비롯



경주첨성대

하여 구름, 안개, 서리, 우박 등의 관찰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는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신라에서 7세기 전반기 건설한 경주첨성대는  
당시 기상 및 천문관측에 리용한 첨성대유적의  
하나로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원상대로 남아있는 경주첨성대는 1년을  
나타내는 360여개의 화강석으로 쌓았으며 높  
이 약 9m되는 맨 꼭대기에 관측기구들을 설치  
하여놓고 기상의 변화와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  
였다.

고려(918년~1392년)시기에는 농업생산의  
발전과 앞선 시기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기상관측은 더욱 발전하였  
으며 체계화되었다.

고려봉건국가는 나라를 세운 초기부터 태복  
감과 태사국이라는 전문적인 천문기상관측  
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두어 전국  
적범위에서 관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개성 만월대 서쪽에는 고려시기에  
설치하였던 천문대의 받침대로 리용된 5개의  
돌기둥이 남아있을뿐이어서 거기에 설치했던  
관측기구가 어떤것이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고려사》에 태양후점, 일식, 월식, 달, 별의  
운행과정 등 천문관측자료들과 함께 기상학적

변화도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천문기상관측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  
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부터  
수학, 물리학 등의 과학이 보다 발전하고 또  
기상관측기구들이 많이 도입됨에 따라 정상  
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되었다.

1441년에 최초로 만든 통모양의 측우기를 발명  
하여 강수량을 측정하였다.

그후 측우기는 여러번 만들어졌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에 비치된 측우기로  
측정된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고되어  
집결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조선봉건왕조말  
까지 계속되었다.

기상리론측면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18세기의 실학자 리익(1681년~1763년)은  
눈의 결정구조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았  
으며 다른 실학자들에 의하여서도 우박과 얼음,  
눈, 비, 해양현상, 온도 등에 대한 진보적인 견해  
들이 제기되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서운  
관지》, 《풍운기》와 같은 가치있는 기상관계  
책도 편찬되었다.

조선민족이 창조한 기상관측문화는 조선  
로동당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  
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사진, 글 김선경



첨성대측대유적



측우기



# 불굴의 정신력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2015년 세계력기 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과 로씨야, 까자흐스탄, 중국, 일본을 비롯한 98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한 경기에 조선의 여자력기선수 림정심도 참가하였다.

이미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여러 경기들에서 우승자로 인식된 림정심인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람자들의 관심은 컸다.

75kg급 경기에 출전한 그는 평시에 편안한 기술로 단번추기에 의한 정확한 들기로 첫번째 끌어올리기를 성공시키고 두번째들기에 나왔다. 하지만 림정심은 다리를 상하여 일어설수가 없게 되었다.

의사들은 림정심에게 경기출전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받을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심은 쓰러지지 않았다.

세번째들기에 태연히 나선 정심을 바라보는 그의 감독 김춘희와 경기장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세번째들기 성공이라는 경기심판측의 결과와

함께 림정심을 온 경기장의 관람자들이 환호했다.

비록 2등을 했지만 육체적고통을 완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낸 여자력기선수 림정심.

힘과 정신력의 대결인 여자력기계에 뚜렷한 자욕을 남기며 금메달로 조국을 받드는 그의 자서전에는 많은 성과들이 남아있다.

2011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 추켜올리기 63kg급에서 128kg을 들어올려 1위를 쟁취, 주체101(2012)년 8월에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끌어올리기 115kg, 추켜올리기 146kg을 들어올려 종합 261kg으로 우승, 주체102(2013)년 9월에 진행된 2013년 성인급 아시아컵경기 여자 75kg급에서 종합 1등,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1등 ...

나라에서는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었다.

림정심이 력기를 시작한것은 10살때부터였다.

당시 만경대순화학교에서 공부하던 정심의

천성적소질을 눈여겨 본 김춘희감독은 그를 청춘거리청소년체육학교에 입학시키고 전문력기선수로서의 훈련지도를 주었다.

큰손과 유연한 육체, 이악한 성미는 력기선수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딘 정심의 장점이였다.

력기를 시작한지 2년만에 전국청소년체육학교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한것으로 첫선을 보인 림정심은 세계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강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경기에서 그가 발휘한 초인간적인 힘의 원천은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조국과 이어진 뜨거운 정과 사랑이였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조선의 정신력을 지닌 조선체육인의 장한 모습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준 여자력기선수 림정심은 오늘도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길에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

글 강수정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우승한 림정심선수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경기도중 다리를 상하였지만 완강한 의지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 소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가 진행되었다. 련석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국제래권도련맹창립 50돐 기념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리용선 국제래권도련맹 총재, 장웅 국제래권도련맹 명예총재, 룡와이맹 국제래권도련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래권도대표단, 래권도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제19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로씨야, 로므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자, 라이, 오스트랄리아, 이란,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헬남, 꾸바, 중국 대북의 22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였다.



세계급혈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있었다.



제18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로론회가 있었다.



